



남창계곡 시원한 물놀이 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5도를 기록한 30일 장성군 북하면 남창계곡에서 가족단위 피서객들이 시원한 물놀이를 하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끓이지 않는 '술취한 선박'

## 울들어 전남·북 해상 음주운항 18건 적발...전국 두번째로 높아

전남·북 해안에서 해상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목포·여수·여수·군산 등 서·남해안에서 적발된 해상 음주단속건수는 모두 18건(형사처벌 9건, 과태료 9건)에 달한다. 이는 전국 4개 지방해양경찰청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22건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에서는 모두 57건이 적발됐다.

선박 종류별로 보면 어선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낚시어선·예산 부선 각각 2건 ▲화물선·여객선 각각 1건씩 등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5년간 음주운항 적발건수가 올해를 제외하곤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9년 9건 ▲2010년 9

건 ▲2011년 13건 ▲지난해 22건 등이다.

해상 음주운항이 매년 늘고 있는 이유는 일부 선장과 항해사들이 관행적인 음주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해상안전법상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배를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의 경우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경은 어선을 비롯한 여객선·유조선·낚시어선·유조선·유해화학물질 운반선·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자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또 입·출항 선박과 해양수산 관련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내 항포구와 해상에서 예방홍보 활동도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양사고가 가장 많은 시기는 8월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8월에 일어난 해양사고는 평균 69건으로 ▲기관 손상이 22건(31.9%) ▲충돌 12건(17.4%) ▲좌초 6건(8.7%) ▲추진기 작동장애 5건(7.2%) 순으로 나타났다.

8월에 발생한 사고 중 침몰·전복·해양오염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5%·3%로 적은 편이지만, 연중 8월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판원은 침몰 사고와 전복 사고를 막으려면 안전한 장소에 배를 견고히 대고 작업할 때 방향이나 속도를 갑작스럽게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광주교육청 을 사무관 승진심사 '그대로네'

## 작년 논란 개선 없어...예정인원 12명·심사 대상 43명 공고

지난해 노조의 강한 반발을 샀던 광주시교육청 사무관 승진 대상자 교육과 평가가 개선없이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시교육청은 2013년도 5급 승진 심사제 운영 방침을 30일 사전 예고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5급 승진인원 12명, 승진심사 대상인원 43명을 공고했다.

교육행정 5급 10명, 공업·시설 5급 1명, 사서 5급 1명이 승진할 예정이며

5급 승진 심사의 대상이 되는 인원은 교육행정 35명, 공업·시설 4명, 사서 4명 등이다.

시교육청은 승진심사 대상자를 상대로 역량검증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오는 10월 31일 보고서 작성 평가, 11월 1일 인터뷰 평가를 거친다. 교육행정 현안, 사회적 이슈, 윤리의식 등을 주제로 작성된 보고서를 대학교수 5급 이상 공직자, 법조인 등 외부 인사 5~6명의 평가위원회가 심사한

다. 인사위원회는 심의자료를 집계해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며 교육감이 최종 승진 임용대상자를 확정한다.

시교육청은 사무관 승진 기준을 지난해부터 시험에서 승진후보자명부(근무평점) 30%, 역량평가 70%(보고서 35%, 면접 35%)로 바꿔 승진 대상자들이 보고서 작성방법을 확연히 배우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조선대병원, 광주·전남 유일 '뇌혈관내수술' 인증기관

조선대병원이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뇌혈관내수술' 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

30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뇌혈관내수술' 인증 의료기관 선정과 함께 뇌신경외과 장석경 교수가 뇌혈관내수술 인증 자격을 획득했다.

뇌혈관내수술 인증제는 우리나라 뇌혈관내수술에 대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뇌동맥류, 급성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뇌혈관내수술은 첨단영상장비를 이용한 혈관조영술로 혈관 내에 미세도관을 삽입해 각종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이며, 사망률이 높거나 수술 후 합병증이 많은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등을 치료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 기준과 수련 등이 필요하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2010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뇌혈관투석센터'로 선정돼 전문진료체계를 구축,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학교 비정규직 1년 근무면 무기계약직 전환

##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확대...2017년 전면 실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학교 비정규직 근무자가 1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17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출신의 채용을 우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이들에 대한 채용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법제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

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김희정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작년 대선공약을 언급하며 "공약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이번에 단축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연희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1분 해질 19시 37분 달돋이 00시 12분 달질 14시 20분

**무더위 속 장마**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	26/31°C
목포	구름많음	25/30°C
여수	비	25/30°C
나주	비	26/31°C
완도	비	26/32°C
구례	비	25/32°C
강진	비	26/32°C
해남	비	26/32°C
장흥	비	26/32°C
순천	비	24/31°C
영광	구름많음	26/31°C
진도	비	26/31°C
전주	비	25/32°C
군산	비	24/30°C
남원	비	24/32°C
옥산도	구름많음	25/30°C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목포, 전주, 여수,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종형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위험	보통	매우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0.5~1.0m	위험	보통	매우높음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1.5m	위험	보통	매우높음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8/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25/31	24/33	24/33	24/33	24/32	24/32

# 검, 전군표 자택·서울지방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CJ그룹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수사진을 두 팀으로 나눠 관련 자료를 동시에 확보했다. CJ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

을 조사해 3560여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세금을 한 톨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1시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아파트 자택에 수사진 4~5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보관 문서, 각종 장부 등을 확보했다. /연희뉴스

# 다중양알프스 등반중 조난

## 한국인 4명 사망·1명 구조

일본 나가노(長野)현의 산악 지대인 '중양 알프스' 등반에 나섰던 한국인 단체 등산객 20명 중 5명이 약전후 등으로 조난 사고를 당해 4명은 숨지고, 1명은 구조됐다.

30일 일본 경찰과 니가타(新潟)주 재 한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에 나가노현 호켄다케(2931m) 남쪽 해발 2850m 지점에서 한국인 등산객 박문수(78·부산 사상구)씨가 숨진 채 일본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연희뉴스

또 새벽 6시께에는 히노키오다케(2728m)와 호켄다케 사이 해발 2800m 지점 등산로에서 이근수(72·부산 사상구)씨가 역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인신(70·부산 중구)씨가 히노키오다케와 호켄다케 사이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오후 4시12분께 호켄다케 100m 높이에 낭떠러지 아래에서 경찰 헬기가 이종식(64·부산 동구)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난된 5명 중 박해재(63·부산 수영구)씨는 이날 오전 11시에 한 산장에 있다가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이에 따라 등반에 나선 한국인 관광객 20명의 생사가 모두 확인됐다. /연희뉴스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

**2013. 9. 1~11. 17 (매주 토, 일요일 경기진행)**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 참가신청**  
(1) 참가신청 기간 : 2013년 7월 17일(수) ~ 7월 31일(수)  
(2) 구비서류 : 선수등록 신청서, 팀단체사진  
(3) 선수등록은 23명으로 제한하며 감독 및 코치, 부장도 선수로 출전 가능.
- 참가팀수** : 천왕·지왕·인왕·호남 토너먼트 각16개팀(총 64개팀)
- 각 토너먼트의 선수구성**  
(1) 천왕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7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2) 지왕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6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3) 인왕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6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4) 호남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없음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1969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 시상** : (1)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2) 감독상  
(3) 최우수선수상 (4) 우수선수상  
(5) 우수심판상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주 최 | **광주일보** | 주 관 | 광주광역시야구협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  
| 자 원 | 경륜·경정·적립금 | 문 의 | http://www.kwangju.co.kr, 062-220-0541